

“정율성을 키운 사람들 스토리텔링 하자”

‘광주 관광객 1천만명 유치방안 모색’ 심포지엄서 제시 어등산 의병 성지화·ICT 5G 타워 연계 특화거리 조성

어등산을 의병의 성지로 만들고 정율성을 키운 광주의 인물과 문화자원을 문화 이야기로 확장하는 등의 관광 마케팅 방안이 제시됐다.

6일 광주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광주 관광객 1천만명 유치방안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광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발제자로 나온 양성현 미디어코리아 대표는 ‘성공적인 인바운드 광주 관광 마케팅 방안’을 주제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타겟에 맞는 관광객을 끌어오는 마케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양 대표는 “기독교남도 답사 1번지인 광주 양립동에 맞춤형 관광서비스와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해 서울 등지의 관광객을 끌어 올 수 있다”며 “또 의병의 성지인 광주 어등산을 스토리텔링 해 ‘의병의 성지’로 만들고 이를 통해 청소년 대표 수학여행지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 중국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음악가 정율성 관광과 관련해 “정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율성을 키운 광주 인물들과 문화자원’을 포함해 정율성이란 문화 이야기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율성의 외삼촌 최흥중 목사와 최영옥 초대 전남지사, 외숙모 음악인 김팔레 등 광주 외가 인물들을 관광에 포함해 더 깊고, 더 풍부하고, 더 큰 정율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희수 호남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는 ‘스마트시티와 관광관광’이라는 발제를 통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5G 타워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조성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가상·증강현실(VR·AR),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ICT를 활용해 교통·환경·안전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의 고도화를 꾀하고, 이들 첨단 ICT를 연계한 시범서비스와 디지털 사니지 특화 거리를 조성하자고 했다.

또 여행 광주시의 면모 과시를 위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산업 활성화 계기를 마련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황룡강을 연계한 어등산관광단지, 송산유원지와 송정리북향역사 추진과 영산강을 연계해 서구소각장 터에 AR, VR, MR 등을 동원한 사이버동물원 등을 제안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9월 ‘광주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첫 심포지엄에 이어 올해 2번째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이상수 포럼그랜드비전 상임대표는 “그동안 광주를 찾는 연간 외지 관광객 수가 240만 명 수준으로 이는 관광볼모지나 다름없다”며 “100만 관광객을 이끌어 오는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 광주의 역동성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상업지역 초고층 아파트 규제 개정안 지지”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상업지역 내 초고층 아파트를 규제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건설업계의 반발로 광주시가 최근 단계적 실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6일 “상업지역 내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 난립을 막기 위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용적률 개선은 도시경관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아파트는 주거 기반시설이 있는 곳에 건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에서 “상업 및 주거지역에 부합한 도시재생과 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도용적제 개선은 필수”라며 “광주시가 수년간 진척되어온 논의과정을 무시하고 이해당사자인 건설업체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도시 문제가 야기되자 과거 수년간의 논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상업지역내 용도용적 용적률을 조정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의견 수렴을 위한 수차례 토론회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1월 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12월 광주시의회에 상정하려 했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민선 7기의 도시계획의 주요 방향은 ‘광주다움’ 강조로 광주라는 도시정체성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초고층 아파트에 제동을 걸고 무등산, 광주천과 영산강, 도청 등과의 조화와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계획을 견인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영산강 마한문화권지원 특별법 전남도의회, 제정 건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6일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 발의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은 ▲고대역사문화권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영산강유역고대문화권, 가야문화권, 백제문화권 등 8개 문화권에 대한 개발과 지원에 관 특별법 필요성 ▲국비예산지원과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범정부적 지원과 법적근거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마한은 삼국시대 이전인 기원전 3세기에 형성돼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있던 삼한 중 가장 큰 정치집단이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붉은빛 산수유 열매 구례군 산동면의 한 산책로에 붉은빛 산수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산하기관장 잇따라 물갈이

강진의료원장 사의 정보문화진흥원장 등 임기만료

강진의료원장·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전남도 산하기관장이 잇따라 물갈이 된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상 강진의료원장이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임기가 만료됐고, 김형진 녹색에너지원장도 내년 1월말 임기가 끝난다.

강진의료원은 최근 방만 경영과 비리의혹이 제기돼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임기가 내년 5월 1일까지로 5개월 이상 남아있는 시점에서 이 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특별감사 등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이 원장의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곧바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새 원장 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임기가 만료된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한 공모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창렬 원장은 지난해 12월 3년의 임기를 마치고 경영성적이 좋아 1년간 원장직을 더 수행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도 원장 공모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김형진 원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원장 채용 공고로 내고,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아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3년 취임해 2016년 1월 한차례 연임, 내년 1월이면 총 6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공모가 중단된 전남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관광업무 분리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나오는 대로 조만간 공모절차를 재개한다. 내년 3월 원장 임기가 만료되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도 연임 여부에 따라 공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공모연수에 들어가는 박준수 전남도 감사관도 교체된다. 전남도는 내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맞춰 감사관을 공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해외 홍보 본격화

이용섭 시장·조직위, FINA 中 항저우대회서 광주 알러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7개월여 앞두고 해외 홍보가 본격화한다. 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6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5회 FINA(국제수영연맹) 월드컵 아쿠아티크 컨벤션과 제14회 FINA 25m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해 세계 수영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년 광주수영대회를 홍보한다”고 밝혔

다.

오는 8-10일까지 열리는 FINA 아쿠아티크 컨벤션은 FINA에서 주최하는 국제 박람회 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209개 나라의 수영연맹 지도자와 코치, FINA 위원, 차기 개최도시 관계자, 각 국 수영 산업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컨벤션에서 FINA측 초청을 받은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도시와 스포츠를 위한 영향 확대’라는 주제로 대회 개최에 따른 지역공동체 참여 방안, 대회 기념 유산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2020년 아시안게임 개최도시인 항저우시 관계자와 아시안게임 및 광주수영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각 국 수영연맹 관계자에게도 광주대회 참가를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오는 11-16일까지 항저우 울

림픽·국제박람회 센터에서 열리는 제14회 FINA 25m 쇼트코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도 대회 홍보를 이어간다.

특히, 16일 공식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FINA 월드컵 아쿠아티크 갈라(Gala) ‘별들의 밤’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초청 인사와 각 국 연맹대표 등에게 내년 대회를 알린다.

한편, 조직위는 이번 FINA 아쿠아티크 컨벤션과 항저우 수영대회 기간 동안 홍보 부스를 설치해 각 국 대회 참가자들과 중국 관람객들에게 개최도시 광주와 내년 수영대회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 나서

내년 3월 10일까지 특별단속

광주시는 6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3개월간 특별합동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을 위해 밀렵의심지역을 선정하고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4개 기관 3개반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참기, 울무, 땃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거래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 엮구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행위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단속에서는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울무, 땃, 그물, 장애 등 불법 엮구도 수거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국 어디서나 교육장·회의실을 무상으로 지원해드려요!

(연중상시)

서울 교육장

☎ 혁신실 48명, 도전실 15명, 희망실 15명, 성공실 12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종로1가 대성스카이렉스 빌딩 102동 309호

☎ 02-723-0173 📠 02-723-0175

대구 교육장

☎ 혁신실 80명, 희망실 20명, 성공실 20명

📍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동 2가 2-13 리치프라자 2층 (북구청 인근 대구일중학교 앞 리치프라자 2층)

☎ 053-353-7667 📠 053-353-7669

무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부산 교육장

☎ 혁신실 45명, 희망실 15명, 성공실 20명

📍 부산시 중구 중앙동 3가 1번지 부산우체국빌딩 12층

☎ 051-463-0212 📠 051-463-0214

광주 교육장

☎ 혁신실 80명, 희망실 20명, 성공실 20명

📍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4층

☎ 062-367-0135 📠 062-367-0137

대전 교육장

☎ 혁신실 80명, 성공실 40명

📍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227 동서빌딩 6층

☎ 042-363-7767 📠 042-363-7796

* 단, 교육비를 받는 강좌 운영, 제품판매를 위한 행사장 등 영리 활동을 목적으로 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 불가 (유상 대어를 희망할 경우 각 전용교육장에 문의)

검색창에 “지식배움터”를 검색하세요!